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. 재해대비 비상 대처 훈련

이형동 기자 | 승인 2024.05.26 18:15

성주 및 자산저수지에서 실제상황 가정

▲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23일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 훈련을 하고 있다.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가 지난 23일 가천면 성주저수지와 벽진면 자산저수지에서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훈련했다.

훈련은 성주지사 전 직원이 집중호우와 태풍,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해 저수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, 실제상황을 가정한 현장 대응 훈련이다.

직원들은 재난 발생 시 긴급 복구를 위한 굴삭기 등의 장비를 운용하고, 인력 수방 자재를 동원해 인명·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. 또 저수지에 설치된 싸이펀 여수로를 작동시켜 저수지 붕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.

이돈문 성주지사장은 "지사 전직원들이 상시적인 비상 대처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비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,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처하겠다"고 말했다.

이형동 기자 hd60lee@naver.com

저작권자 ©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